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노동시장 안정세…구인 공고는 조금 줄었으나 채용 증가
- Bloomberg: 미 3월 무역 적자 커져…수입이 수출보다 많아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핵심 국채 30년 만기 수익률 5% 돌파… 국채 시장 압력 높아져
- Bloomberg: 증시 상승, 오일가 하락…"중동 휴전 여전히 지속"

[이란 전쟁]
- Bloomberg: 미국, 호르무즈 충돌에도 불구하고 "휴전은 여전히 유효" 입장
- CNBC: 글로벌 선사 Maersk, "미국의 군사 보호로 호르므주 통과" 밝혀

[오일
- CNBC: 오일 가격 하락세롤 돌아서…중동 위기 완화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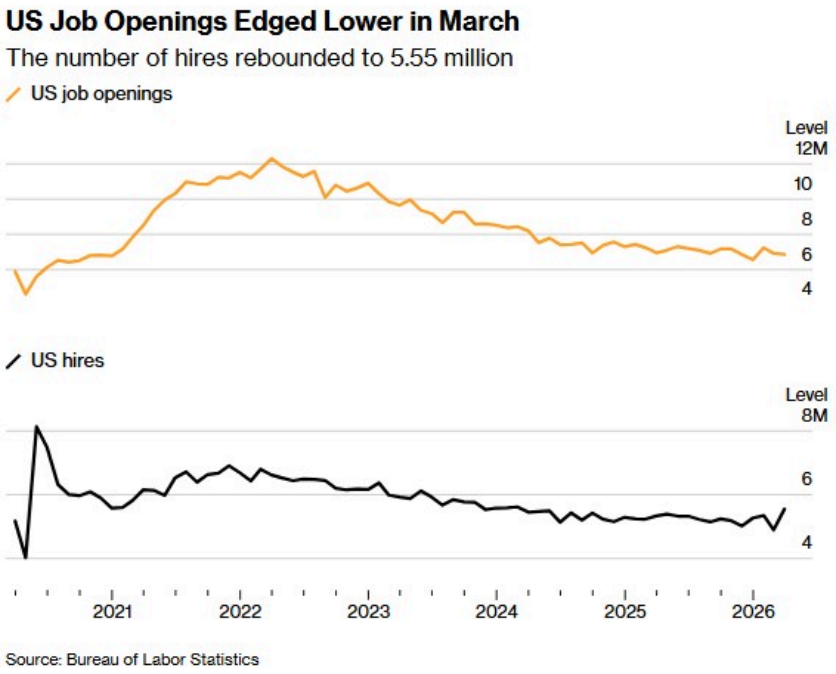
[인공 지능]
- TechCrunch: 엔비니다 CEO "AI 산업으로 일자리 대량으로 창출된다"
- YahooFinance: 골드만 삭스 "AI가 컴퓨터 가격과 전기료 등 인플레 키운다" 우려
- Bloomberg: 애플, 메인 기기 칩 사용 위해 삼성과 인텔 협력 모색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Job Openings Fell Slightly in March as Hiring Rebounded
미 노동시장 안정세…구인 공고는 조금 줄었으나 채용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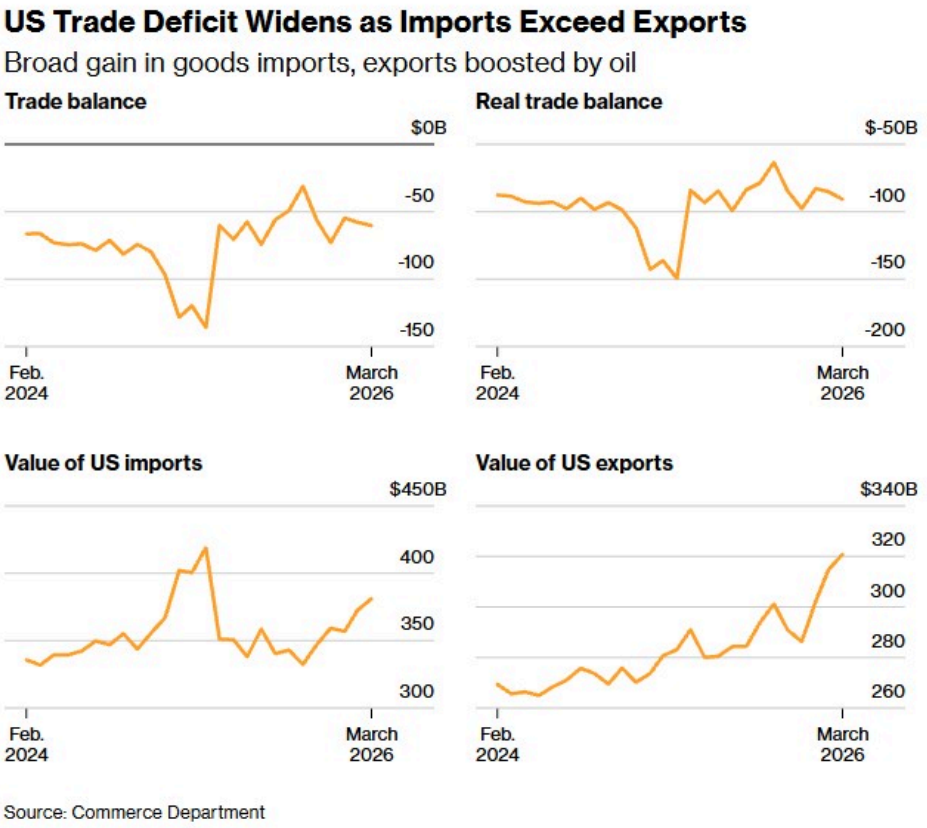
- 연방 노동부가 오늘 화요일 발표한 3월 일자리 공고 숫자는 6백87만 건으로 전월 6백92만 건 대비해 소폭 감소했으나, 채용은 반등하며 노동 시장의 안정세를 보여주었다. 특히 채용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였던 2월의 부진을 딛고 3.5%로 급등했다.
- 이러한 채용 반등은 전반적인 노동 수요 둔화 속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.
-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'낮은 채용· 낮은 해고' 기조 속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비용 압박이 향후 고용을 위축시키고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.



기사

Bloomberg: US Trade Gap Widened in March as Imports Outpaced Exports
미 3월 무역 적자 커져…수입이 수출보다 많아

- 미 무역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견조한 소비자와 기업 수요 신호를 보여주는 가운데 미 무역 적자가 3월에 늘어났다.
-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가 2월에 비해 4.4% 늘어 난 6백3억에 달러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화요일 밝혔다. 전문가들은 6백1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었다.
- 전체 수입 가치는 2.3% 증가했는데 특히 자동차와 소비지 그리고 핵심 자본재 수입이 늘어났는데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 외국 컴퓨터 장비 수입이 늘어났다. 반면에 수출은 오일, 식품 등이 많았다.

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Key US Yield at 5% Highlights Mounting Pressure in Bond Market
핵심 국채 30년 만기 수익률 5% 돌파… 국채 시장 압력 높아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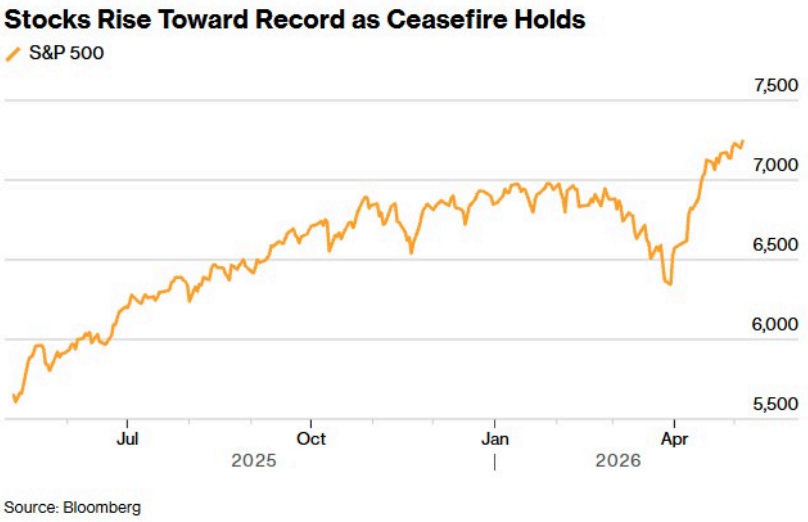
-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지노선인 5%를 돌파한 뒤 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. 세계 최대 채권 시장의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,
- 국채 금리 5% 상회는 미국 정부의 예산 부족 우려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상환 비용 문제가 더 커지며, 여타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.
-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금리 인하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으며,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. 실제로 스와프 시장은 내년 초 초 0.25%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시행될 확률을 50%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셈이다.



기사

Bloomberg: Stock Rally Resumes, Oil Dips as Iran Truce Holds
미 증시 상승, 오일가 하락…"중동 휴전 여전히 지속"

-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면전 위기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입장으로 인해 완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. 증시는 상승하고 유가는 하락하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모습이다.
- S&P500 지수는 호르무즈 해협 충돌 하루 만에 미국 정부가 갈등 확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반등했다. 오늘 11: 50am 현재 S&P 500은 0.77% 상승 중이다. 나스닥은 0.97% 가까이 오르고 있다.
- 브렌트유는 봉쇄 위협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배럴당 111달러 선으로 내려왔다. 미 국방장관은 휴전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으며, 이란 외무장관 또한 협상의 진전을 언급하면서도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분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.



기사

[이란 전쟁]

Bloomberg: US Says Iran Ceasefire Still in Place After Clashes Over Hormuz
미국, 호르무즈 충돌에도 불구하고 “휴전은 여전히 유효” 입장

-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충돌과 아랍에미리트(UAE)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, 이란과의 전면전 재발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다.
- Pete Hegseth 미 국방장관은 이란 측이 페르시아만 내 선박과 UAE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, 약 한 달 전 발효된 휴전 협정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확인했다.
- 앞서 미국은 걸프만에 고립된 중립국 선박들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한시적인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’Project Freedom’에 착수했으나, 이란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선박 및 UAE에 대한 공격으로 응수한 바 있다.

기사

CNBC: Maersk says ship passed through Strait of Hormuz under U.S. military protection
글로벌 선사 Maersk, "미국의 군사 보호로 호르므주 통과" 밝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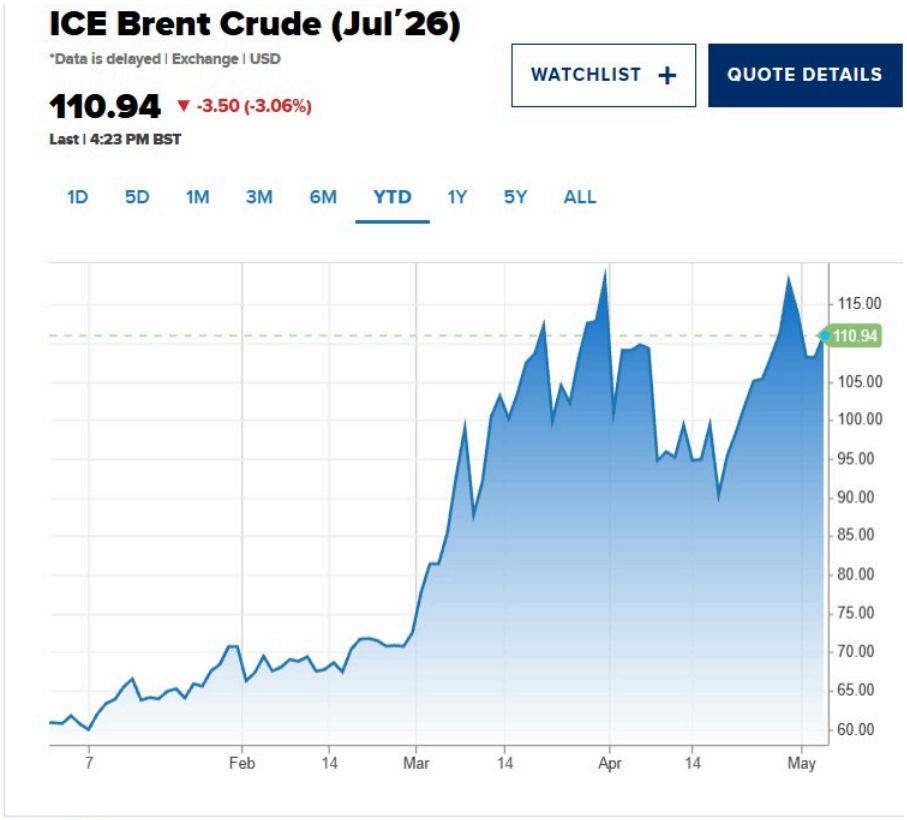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선사 Maersk는 최근 자사 상선 한 척이 미국의 군사 보호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을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해협 봉쇄로 인해 고립된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는 트럼프의 ‘Project Freedom’를 이행하려는 미 해군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.
- 그러나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위태로운 휴전 상태는 화요일을 기점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prices fall after U.S. says Iran ceasefire remains in place despite UAE attacks
오일 가격 하락세롤 돌아서…중동 위기 완화로

- 미 국방장관이 미·이란 간 휴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전면전 확산 우려가 완화되자, 오늘 화요일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.
- 오늘 화요일 오전 브렌트유 선물은 2% 이상 내린 배럴당 111.45달러를, 서부 텍사스산 중질류는 3% 넘게 하락한 102.65달러를 기록했다.
- 전날인 월요일에는 유가가 양국 휴전 붕괴 위기로 인해 4% 이상 급등했었다. 당시 이란은 UAE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,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었다.



Brent crude

기사

[인공 지능]

TechCrunch: As workers worry about AI, Nvidia's Jensen Huang says AI is 'creating an enormous number of jobs'
엔비니다 CEO "AI 산업으로 일자리 대량으로 창출된다"

- Nvidia CEO젠슨 황은 AI가 일자리 후퇴의 전조가 아닌 대량의 일자리를 쏟아내는 엔진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. 그는 특히 AI가 미국의 '산업화 회복'을 이끌 핵심 동력이며,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.
- 그는 첫째, AI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'차세대 산업 공장'들이 들어서며 제조·운영 부문에서 대규모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이다. 둘째, 특정 업무(Task)가 자동화되어도 그것이 직업(Job) 자체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.
- 셋째, 개별 업무를 AI가 돕더라도 직원의 근본적 역할은 유지되며,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 산업 확장과 파생 일자리 확대로 연결된다고 그는 설명한다.

기사

YahooFinance: Goldman Sachs warns that AI is raising computer and electricity costs
골드만 삭스 "AI가 컴퓨터 가격과 전기료 등 인플레 키운다" 우려

- 미국의 AI 혁명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. 골드만삭스 전략가 Manuel Abecasis는 AI가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겠

지만, 현재는 다음 세 가지 경로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.

- 첫째,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부품값이 올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. 둘째,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이 탑재되며 지난 수년간 이용료 상승 압박이 커졌다.
- 셋째,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일부 지역의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다. 즉, 기대와 달리 당장은 AI가 소비자의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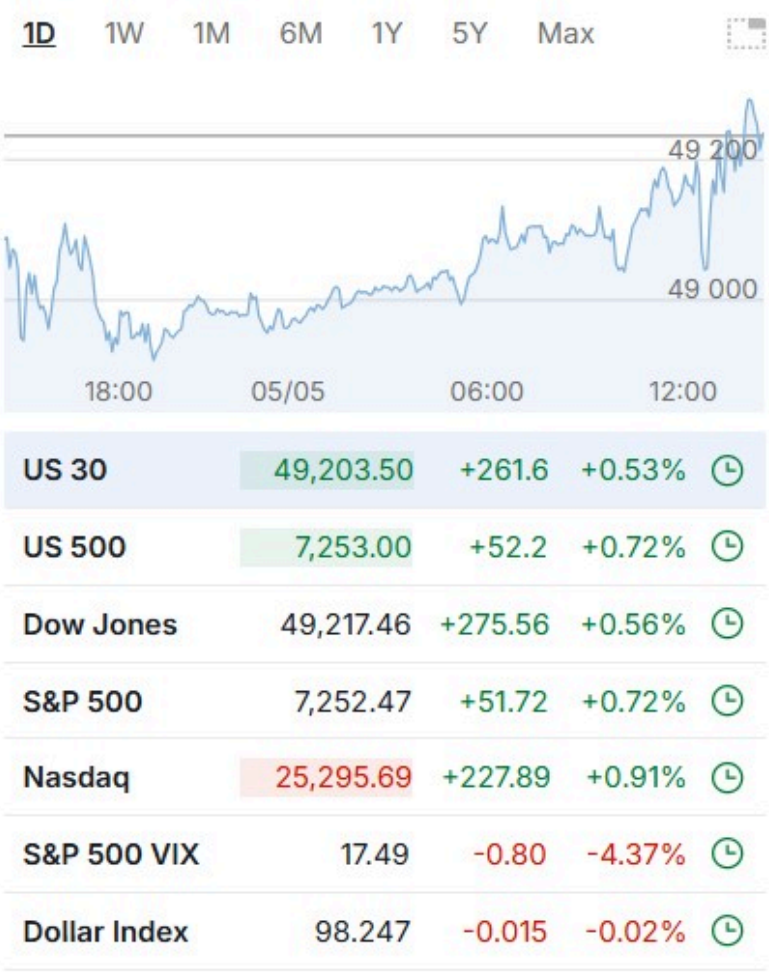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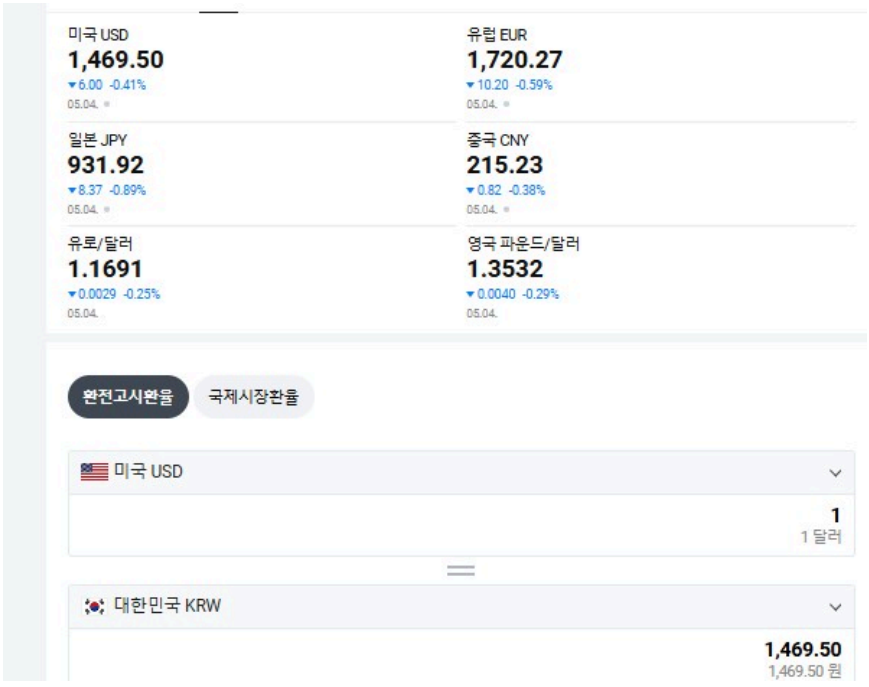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Apple Explores Using Intel and Samsung to Build Main Device Chips in the US
애플, 메인 기기 칩 사용 위해 삼성과 인텔 협력 모색

- Apple이 오랜 파트너인 TSMC 외에 기기용 메인 프로세서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인텔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- 소식통에 따르면 Apple은 Intel의 파운드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했으며, 경영진은 첨단 칩 생산을 준비 중인 삼성의 텍사스 공장도 방문했다.
-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. Apple 내부에서는 비(非) TSMC 기술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어, 최종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]

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